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忠武公李舜臣將軍의 諡號를 탄 그 武功勳章을 탔다고 했는데 제가 아는 사실은 證人의 隸下部隊가 1980年5月18日부터 21日까지 光州戰鬪에서 당초에는 위세 등등하게 殺戮을 했지만은 結果的으로는 3日만에 그 大隊의 蠻行에 맞서 용감하게 일어난 光州民主市民軍에게 쫓겨서 退却을 하고 그 4日後인 27日 새벽에야 그 후에 增派된 20師團의 支援을 받아서 鎮壓이라는 美名下에 無差別報復 했을 뿐 事實上 敗戰部隊인 까닭에 그 敗戰部隊의 司令官인 證人은 敗將입니다.

그래서 결국 敗將이 勳章을 받은 셈인데 敗將으로서 勳章을 받은 所感 들째 證人은 아까 光州 犧牲者들과 遺家族들에게 道義的 責任을 깊게 느낀다고 말했는데 本委員이나 光州市民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 狀況이나 그 외의 情況에 비추어 證人이 道義的 責任을 질 性質의 罪가 아니라 良民을 大量 虐殺한 部隊의 司令官으로서 刑事的 責任 그리고 現役政治人으로서의 政治的 責任을 저야 한다고 判斷한데 대하여 答辯을 하시려면 하시고 하기 싫으면 그만 두십시오.

答辯하시면 제가 質問을 마지막으로 또 하겠습니다.

○證人 鄭鎭溶 다 하셨습니까?

冒頭에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光州事態로 인해서 犧牲된 犧牲者 그 遺家族 또 그로 인해서 負傷을 당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참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빨리 政府에서 이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對策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그러한 示威過程에서 光州市民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民主化運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眞意가 잘못 이해되고 해서 마치 큰 騷擾나 일으킨 사람처럼 誤解된데 대해서는 政府에서 충분히 納得이 갈 수 있는 措置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共和國에서 잘못된 부분의 역시 이 하나가 그러한 문제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5共和國에서 반드시 정리가 되고 措置가 되었어야 할 것이 아직도 措置가 되지 못한데 대해서는 이것은 5共和國의 큰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것은 그간 여러가지 誤解가 있었읍니다마는 저는 그 사실을 하나도 歪曲을 한다든가 隱匿을 한다든가 또는 저에게 오는 責任을 남에게 轉嫁한다든가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읍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제가 하지 않았던 것을 아무리 여러분들께서 한 것이 아니냐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해도 사실 아닌 것을 어떻게 제가 했다고 하겠읍니까?

저는 그런 기분에 지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누가 잘못했으니까 處罰을 하고 누가 잘했으니까 될 해야된다 하는 얘기는 이제는 和合의 次元에서 바로 善가 되는 行爲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말들은 다 많겠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眞心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國民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8年이라는 긴 歲月이 지나갔읍니다. 그래서 6共和國의 大統領이신 또 國民께서 직접 選舉를 해서 뽑으신 大統領께서 잘못된 公權力의 行使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民主化運動이다 이렇게 規定을 지어주셨고 또 政府에서 그러한 억울한 사람들에 대한 補償을 하겠다고 約束을 했으니까 이제야말로 이 모든 眞實을 把握하는 것은 和合의 次元에서 거기에다 目標을 두고 사실을 明明白白하게 把握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政黨의 目的이나 政治的인 目的이 介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또 혹 어떤 政治人들은 제가 무슨 民正黨의 實力者고 앞으로 또 무슨 次期 政權擔當者로 나올 것이 아니냐 이러한 염려까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뜻이 없읍니다. 없고 제가 여러분에게 참말 제 희망을 말씀드린 것은 이 光州事態가 빚어져서 저에게 가지고 있는 誤解나 완전히 解消가 되고 저는 편안하게 보통사람으로서 살아나갔으면 하는 것이 진짜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眞實을 眞實대로 받아 주실 것을 다시한번 當付해 마지 않습니다.

○委員長代理 辛基夏 質問 다 하셨지요?

趙洪奎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海瓚委員 말씀하십시오.

○李海瓚委員 本委員의 質問過程에서 사진을 提示했는데 그 사진의 내용에 관해서 民正黨의 李敏燮委員께서 혹시 그 光州寫眞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疑訝心을 갖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사실을 좀 밝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本委員이 아까 質問過程에서 提示한 사진은 月刊中央 3月號입니다. 月刊中央 3月號... 國會圖書館에 있는 책을 빌려서 光州關係資料를 꼼꼼히 보다가 보니까 중간에 가운데 토막에 가면 사진으로 본 光州事態 現場이라는 사진 畫報부분이 나옵니다. 이 畫報에 보면은 사진이 여러 개 나오는데 여기 뭐... 具體的인 사진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잔혹한 사진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本委員이 光州에 관련된 資料는 거의 다 봤는데 이 사진들도 이 중에서 본 사진들도 있고 못 본 사진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진 하나 꼼꼼히 보다가 사진의 맨 뒷장입니다. 그러니까 411「페이지」바로 앞 「페이지」에 이 앞에 提示한 그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光州抗爭의 現場이라는 畫報集에 실려있고 寫眞說明이 屍身앞에서 있는 空輸隊員들 屍身과 遺留品을 살펴보고 있는 軍關係者들 이렇게 설명까지 자세하게 되어 있고 이 사진에 보면 空輸部隊의 모자가 분명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 앞서 民正黨委員의 質問은 별 信憑性이 없는 얘기다 그 市民의 情報라고 하는 것은 별 根據가 없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두번째로는 1980年5月20日 國會議員들의 登院을 막은 軍人들 그 부분이 憲政秩序를 紊亂하게 한 명백한 內亂罪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고 앞서의 證人들도 여러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막은 軍人이 어디 누가 나가 문제입니다. 지난번 李煥性證人께서는 막은 사실을 報告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申鉉碩證人은 25日頃에 자기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막았다라면 그것은 國憲紊亂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本委員이 막은 사실을 그대로 찍은 사진은 提示를 했기 때문에 그 部隊가 어느 部隊냐 하는 것만 確認하면 되는 것인데 本委員한테 國防部에서 提出한 戒嚴狀況日

誌 戒嚴司令部 이 資料에 의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資料에 20日字 관련해 가지고 資料를 보면 資料에 一連番號中에서 2344番이 首警司가 서울 市內의 戒嚴狀況에 관한 報告書입니다.

그것이 23時50分 狀況을 首警司가 報告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45番이 始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2350番으로 건너뛸니다. 그러니까 2345番부터 2349番까지의 5個의 報告事項이 漏落되었습니다. 그래서 2350番이 1980年5月20日 11時 狀況입니다.

그 11時 狀況에는 역시 首警司의 殘留兵力云云하는 다른 狀況 日誌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國防部에서 提出한 資料만 가지고서는 民正黨에서 提示한 首都軍團의 兵力인지 首警司의 兵力인지를 確認할 수가 없고 또 首都軍團과 首警司間의 作戰 指揮體系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지금 밝힐 수가 없습니다.

本委員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首警司의 動員兵力이 아닌 部隊가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盧泰愚의 책임이다 이렇게 하자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首都地域에 있는 중요한 公共機關에서 발생한 事件이고 이 戒嚴狀況日誌를 갖고서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후에 보다 資料를 정밀하게 檢討를 해서 그 部隊의 所屬이 어디고 作戰指揮權이 어디 있는지 그런 것을 民正黨에서 本委員에게 명확하게 提示를 한다면은 사실에 기초를 해서 本委員이 다시 說明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張石和委員 證人에 관련된 議事進行發言입니다. 잠깐만...

○委員長代理 辛基夏 證人이 제셔야 합니까?

○張石和委員 관련된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辛基夏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張石和委員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辛基夏 證人이 答辯할 事項은 아닙니까?

○張石和委員 아닙니다.

아까 本委員의 質問에 證人께서 月刊京鄉

88年度 5月號 이태원記者와 「인터뷰」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한 내용이 月刊京郷 88年 5月號에 다 적혀 있는데 이 내용이 전부 造作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이태원記者와 證人과 「인터뷰」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와같은 月刊京郷 88年度 5月號의 내용은 사실인지 아닌지 그중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證人께서 造作됐다고 해서 더 이상 여쭙어보지 않았읍니다마는 그중에는 全斗煥씨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 光州事態에도 證人은 命令權 밖에 있었지만은 全將軍은 保安司와 安企部를 總括하고 있어서 사정이 달랐다 이렇게까지 여기에 證人이 陳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證人께서 과연 僞證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이태원記者와 對質訊問을 해주실 것을 申請을 합니다.

○委員長代理 辛基夏 오늘은 聽聞會니까 申請이나 動議보다는 이 다음 全體會議나 또 幹事를 통해 幹事會議에서 論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李敏燮委員 委員長!

○委員長代理 辛基夏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李敏燮委員 잠깐만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辛基夏 그러면 證人 제시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證人이 李委員이 좋아하시는 證人이신데 가지고 나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李敏燮委員 말씀하세요.

○李敏燮委員 委員長代行으로서 좀 품위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李海瓚委員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사진에 관해서는 우리가 真相을 알아 보자고 證據로써 採擇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도 提報가 오고 또 그 사진이 共匪討伐 寫眞이라는 그러한 電話가 저희 黨으로 계속 수 없이 걸려 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言論機關에서 이것을 取扱을 했지만 또 言論機關에서 많은 사진을 다루다 보면은 또 이런 것이

錯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가지 出處에 관해서 여러가지 우리가 調査를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떤 여기서 結論을 내기 보다는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가려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李海瓚委員이 얘기를 하신 가운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是正할 용의가 있고 現職 盧泰愚大統領에 대해서는 추호도 없는 사실을 牽強附會해서 저거 할 의도는 없다하는 저것으로써 이것은 확인은 저희가 조속한 時日內에 해서 우리가 이것이 是正措置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辛基夏 더 訊問할 委員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이상으로 鄭鎬容證人에 대한 訊問을 마치겠습니다.

證人! 證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주십시오.

그러면은 저녁식사를 위해서 너무나 길길은 바쁘고 시간은 없기 때문에 21時30分까지 停會를 할까 합니다. 이에 대해서 異議가 없으시면은... 停會를...

(「45分까지 합시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21時40分까지 停會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20時35分 會議中止)

(21時43分 繼續開議)

○委員長 文東煥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尹興禎證人의 證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證言을 듣기 전에 關係法律에 대해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國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에는 證人이 同法을 위반하면 處罰을 할 수 있는 規定과 이 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證言內容에 대하여 不利益處分을 받지 않는다는 保護規定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證人 나오셔서 宣誓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證人 尹興禎

(證人宣誓)

그러면 尹興禎證人에 대하여 新民主共和黨에 배정된 시간이 40分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訊問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金仁坤委員께서 訊問해 주십시오.

○金仁坤委員 新民主共和黨所屬 金仁坤委員입니다.

證人の 고향과 본적과 지금까지의 重要職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軍經歷을 더우기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證人 尹興禎 고향은 平安北道 벽동이라는 압록강 강변입니다. 6·25가 나서 끝날 때까지 저는 前方에서 전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聯隊長 師團長 그리고 駐越軍의 副司令官을 했고 合同參謀本部의 情報局長을 하고 停戰委員會의 代表를 했습니다.

그리고 5軍團長을 하고 戰鬪兵科教育司令官이 되었는데 그후에 戰鬪兵科教育司令部가 全軍의 學校機關을 統轄하는 教育司令部로 改稱이 되어 教育司令官을 하고 그후 遞信部長官을 했습니다.

○金仁坤委員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證人께서는 軍同僚라든가 또 長官으로 제실 때라든가 이럴 때 대단히 존경받는 그러한 軍人이었고 公務員으로서 존경하는 部下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證인과 나와 이렇게 마주 앉은 것은 우리 民族史에 지극히 불행한 「페이지」를 앞으로는 그런 불행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眞實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존경받고 또 그렇게 良心的인 그 良心과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누구 체면이라든가 社會的인 어떤 위압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祖國에 바치셨던 충성심을 발휘해서 眞實대로 證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證人 尹興禎 예.

○金仁坤委員 고맙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어떠한 강도 한 사람을 殺傷을 했든가 어떤 雜犯이 잘못해서 어떤 사람을 殺害했다든가 이러한 관계를 가리자고 하는 자리가 아니고 大韓民國의 우리가 사랑하는 國軍이 몇몇 되지 않는 政治軍人들의 강압적인 指示에 의해서 民族의 大虐殺을 자

행한 이 사실을 民族과 歷史앞에 확실하게 가려서 앞으로는 이렇게 굴욕되고 굴곡된 歷史가 再現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한번 상기를 시킵니다.

먼저 證人이 光州에 있는 陸軍戰鬪兵科教育基地司令官으로 부임한지는 언제였습니까?

○證人 尹興禎 1978年10月初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金仁坤委員 그렇다면 約 2年 前後 勤務하신 것이 되겠습니까?

○證人 尹興禎 예.

○金仁坤委員 그후 80年5月 後任인 蘇俊烈將軍에게 作戰權을 정식으로 넘겨주신 것은 정확하게 언제였습니까?

○證人 尹興禎 80年5月21日 저녁에 蘇將軍이 光州에 오시고 하루 저녁 같이 지내고 정식으로 22日 10時입니다.

○金仁坤委員 예. 알겠습니다. 本人의 상식으로는 作戰중에 그것도 당시에 戒嚴當局의 말대로라면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地域의 作戰指揮官을 이유없이 바꾸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특별한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더우기 戒嚴分所長이었는데...

○證人 尹興禎 그것은 본인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金仁坤委員 혹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政治軍人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의 先輩軍人들을 모조리 肅軍함으로 인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計劃下에서 그렇게 단행했다고 하는 그런 것은 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시에 戒嚴業務에 證人이 非協調的이었다든가 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證人 尹興禎 우리나라 속담에 강을 건너다가 말을 바꾸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바꾼다 하는 자체는 무슨 굉장한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金仁坤委員 잘 알겠지요.

그러나 德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차마 말을 안하시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本 特委에 提出된 戰鬪詳報에 의하면 2軍司

司令部의 忠正作戰指示 80-2號를 5月17日 19時40分에 接受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證人 尹興禎 그럴 것 같습니다.

○金仁坤委員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證人 尹興禎 그 忠正作戰指示는 忠正作戰計劃을 실행하는 지시이기 때문에 忠正作戰計劃의 내용을 실행하라 하는 指示로 알고 있습니다.

○金仁坤委員 그렇다면 내용 자체가 射殺해서라도 射殺指示를 해서라도 「테보」를 평정해라 이런 것이 되겠군요?

○證人 尹興禎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金仁坤委員 그대요. 공개하진 곤란하십니까? 기억이 안나십니까?

○證人 尹興禎 기억이 안나는데...

鎮壓을 하라 어떤 騷擾事態가 일어났을 때는 그것을 鎮壓을 하라 하는 指示인 줄 기억하고 있습니다.

○金仁坤委員 鎮壓이라는 것은 그 속에 그 내용이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戰鬥가 아니었다면 戰鬥方法으로도 鎮壓을 하라 말이 아니었다면 구태여 軍隊를 동원할 필요가 없겠지요.

알겠습니다. 당시 空輸部隊가 최초로 光州에 進駐한 것은 정확하게 며칠날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80年5月18日 아니 정확히 5月17日 23時55分 第7空輸旅團 3335大隊의 全南大學校 朝鮮大學校 투입을 직접 지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光州에 進駐한 것은 정확하게 며칠날 몇時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朝鮮大學이나 全南大學에 투입을 지시한 것은 정확하게 누구였습니까?

○證人 尹興禎 그 당시에 教育司令部를 指揮하던 2軍의 指示로 생각이 됩니다.

○金仁坤委員 그러면은 정확하게 도착한 시간이 指示를 받으신 시간이 몇時가 되겠습니까?

○證人 尹興禎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日 19時인가요? 兵力이 도착한 것은 1個 大隊는 12時 정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大隊는 18日 새벽 3時頃으로 이렇게 지금 本人은 기억이 됩니다.

○金仁坤委員 지금 證人을 자세히 보니까 제가 존안을 알겠습니다. 저도 光州사람입니다.

아마 가까이 보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證人은 空輸部隊의 投入이 그 당시에 상황으로 보아서 絶對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꼈습니까? 光州를 鎮壓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空輸部隊까지 投入할 필요까지 없다는 上部에 이야기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證人 尹興禎 軍人은 命命에 살고 죽고 합니다. 2軍司令官이 空輸部隊를 보내면서 어디에 投入을 하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왜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權利도 없고 또 그 義務도 없어서 제가 그런 것은 별로 생각을 해보지 못하고 指示대로 저는 수행을 하였습니다.

○金仁坤委員 그렇다면 戒嚴分所長으로서 자청해서 空輸部隊를 데려온 것은 아니군요.

○證人 尹興禎 아닙니다.

○金仁坤委員 고맙습니다. 空輸部隊投入時 당시 郷土師團長이던 鄭 雄少將은 光州는 31師團의 管轄區域임으로 空輸部隊投入은 필요치 않으며 또 그런 상황도 아니라고 反對했으나 特戰司令官인 鄭鎬溶씨가 재차 投入을 指示했다는 사실이 있는데 그러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證人 尹興禎 그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金仁坤委員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이치에 안 맞는다는 말씀입니까?

○證人 尹興禎 이치에 안맞습니다.

○金仁坤委員 왜 그렇습니까?

○證人 尹興禎 上級 司令部가 한 作戰指示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마는 軍人이 그 指示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거나 또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31師團長이 그것을 인지 않았건 원했건 그것은 作戰指示대로 수행이 되어야 될 문제이고 特戰司令官이 어떻게 했다 하는데 대해서 제가 質問의 요지를 잘 못알아들었습니다.

○金仁坤委員 特戰司令官인 鄭鎬溶씨가 다시 指示를 하면서 部隊를 投入하겠다고 이러한 指示를 재차 했다는 얘기입니다. 空輸部隊를...

○證人 尹興禎 그러한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金仁坤委員 모르시는 것은 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無條件 證人께서 말씀하신 것중에서 제가 하나 남득이 안가는 이유가 하나있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되었건간에 上司의 의사에 反할 수가 없다. 그러면 평온한 전혀 사실과는 다른 地域에 戰鬪部隊를 投入해서 射殺하라고 하는 命令을 하더라도 그것을 거절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證人 尹興禎 作戰命令으로 正式으로 하달되었다 하면 어떤 命令이건간에 수행을 해야 됩니다.

○金仁坤委員 예. 알겠습니다. 證人은 5月19日 서울에서 C54경비행기를 타고 내려온 鄭鎬溶特戰司令官과 마주앉아서 對策을 논의한 사실이 있지요? 있습니까?

○證人 尹興禎 對策을 논의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金仁坤委員 19일이지요. 5月19日...

○證人 尹興禎 5月19일이 아니라 5月20日로 기억이 납니다.

○金仁坤委員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鄭鎬溶씨가 證人에게 戒嚴軍의 확고한 決意를 보여 줌으로써 초기에 群衆心理를 가라앉혀야 한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데 이 확고한 의지라고... 決意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證人 尹興禎 鄭將軍이 왔을 때 기억이 그렇게 선명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충 그 동안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아까 質問하신 것 처럼 그런 내용 이었는지는 제가 지금 명확히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태를 우려하고 그 진압등에 관한 조언을 저한테 한 것까지는 기억이 좀 납니다. 명확히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는 것은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金仁坤委員 거기까지 갔으니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가서 지시를 했겠지요? 그것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證人 尹興禎 지시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金仁坤委員 그렇습니까? 空輸旅團의 兵力을 戒嚴分所에 配屬시켰을 경우 그 部隊의 作戰權은 證人이나 또는 配屬部隊인 31師團長에게 귀속되는 것이지요? 作戰權이라는게 그렇습니까?

○證人 尹興禎 그렇습니다.

○金仁坤委員 그런데도 때때로 鄭鎬溶將軍이 와서 간섭한다든가 지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제시를 했다고 하는 사실은 없었습니까?

○證人 尹興禎 아까 그 鄭鎬溶證人이 配屬을 婚姻關係로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그 婚姻關係로 비유한 것이 정확한 비유냐고 하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金仁坤委員 예. 말씀해 주세요.

○證人 尹興禎 軍隊에 있어서 配屬이라는 것은 혼인이라고 만약에 이야기하려면 말입니다. 이것은 期限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전제로 한 혼인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가 그렇게 적합하지 않지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金仁坤委員 예. 그분이야 이치에 안맞는 이야기를 이치에 맞는 이야기 보다도 더 많이 한 분이니까요. 本 特委에 제출된 戰鬪詳報 資料에 의하면 軍의 自衛權 發砲命令이 5月21日 21時에 내려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證人 尹興禎 시간을 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없는데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金仁坤委員 아마 그것이 틀림없을 줄로 믿습니다.

證人이 自衛權 發砲를 허용해 달라고 戒嚴司令部에 요구하신 사실은 있습니까?

○證人 尹興禎 제 기억에 요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金仁坤委員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위에서 그냥 내려보였다 그 말씀이시지요?

○證人 尹興禎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에 나름대로는 21日 正午頃입니다. 61訓練團長을 하고 있는 한일수將軍이 저한테 긴급히 전화가 왔습니다.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제가 전화를 직접 받았는데 인상에 남아서 그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倉卒에 있는 豫備軍訓練所에 지금 武裝이 아니고 그냥 示威群衆이 차를 타고 와서 武器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총을 쏘지 않으면 이것을 뺏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을 쏘게 해주십시오. 그런 報告를 받았습니다.

○金仁坤委員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上級部隊의 命令에 의해서 發砲命令이 下達되었다 그 말씀이군요.

○證人 尹興禎 아니 제 말씀을 조금 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총을 쏘지 말아라 그러나 武器를 뺏기면 안된다. 제가 좀 모순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한일수將軍이 이것은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요 근래에 들었는데 담당해서 陸軍參謀總長한테 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러이러한 사정인데 총을 쏘게 해주십시오 하고 建議를 드렸더니 또 역시 마찬가지로 총을 쏘면 안된다 하는 대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總長이 그런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 여러 가지 事態가 위급했다 하는 것을 알고 물론 狀況報告를 받았겠지만 自衛權을 보유하고 있다 하는 闡明을 하면서 지시를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제가 推理를 해 봅니다.

○金仁坤委員 알겠습니다.

어쨌든 證人 스스로 自衛權 내지는 총을 쏘라고 하는 射擊命令은 안 했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군요.

○證人 尹興禎 저는 移牒 下達했습니다.

○金仁坤委員 예, 移牒 下達하셨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證人은 80年5月19日 정확히 午後 7時10分 光州市 鷄林洞 光州高等學校와 鷄林派出所 사이에서 당시 高等學生인 18살 김영찬군이 戒嚴軍의 총에 맞아서 사망한 사실을 報告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證人 尹興禎 그 당시는 報告를 받지 못했습니다.

○金仁坤委員 이것은 다시 敷衍해서 말씀드리는데 市民들이 총을 뺏는다는가 습격해서 武器를 탈취한다는가 하기 이전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證人 尹興禎 19日이라고 그러셨지요?

○金仁坤委員 예.

○證人 尹興禎 報告를 못 받았지만 光州事態가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마는 光州民主化運動 당시에 관한 기록이 85년부터 제 기억에는 많이 月刊雜誌에도 취급되고 또 單行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읽어본 결과 그 사건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알고 그 당시에 參謀 몇 사람한테 그

사실을 問疑하니까 장갑차가 運行도중 運轉未熟으로 나무를 들이받고 거기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하에서 示威群衆이 모여들고 이러한 와중에서 탑승하고 있던 將校가 거기에서 非常脫出을 해오면서 하늘에다 대고 총을 쏘는데 그 총에 高等學生이 맞았다 하는 사실을 제가 나중에...

○金仁坤委員 그것은 잘못받은 報告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고난 일도 없고 장갑차가 사고난 일도 없고 그 당시에 光州高等學校앞에서 示威群衆이 있었던 사실도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尹興禎 그 당시에는 제가 報告를 받지 못했습니다.

○金仁坤委員 또 5月20日 午後에 光州驛廣場에서 第3空輸旅團 15大隊所屬 將校 한명이 示威車輛을 향해 M16을 無差別 亂射하여 그車輛을 전복시키고 수많은 市民을 殺傷했는데 證人은 이 사실을 報告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도 받지를 못하셨습니까? 20日입니다.

○證人 尹興禎 20日 받지 못했습니다.

○金仁坤委員 本人의 常識으로는 兵士가 射擊練習場에서 實彈이 아닌 彈皮하나만 분실해도 上級部隊에 반드시 報告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空砲도 아니고 威脅射擊도 아니고 당시 이처럼 수많은 사람을 實彈으로 殺傷했음에도 불구하고 報告도 못받았다고 하면 과연 證人은 뭐를 하고 계셨습니까? 그 당시에...

○證人 尹興禎 제가 살살이 이렇게 現況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報告를 통해서 비로소 제가 상황을 파악해야 되겠는데 報告를 해주지 않으면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金仁坤委員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證人들의 이야기로 봐서는 5月21日 13時35분에多數市民을 향해 發砲했다는 사실은 是認들을 했습니다. 그것은 報告를 받으셨습니까?

○證人 尹興禎 그것도 報告는 받지는 못했습니다.

○金仁坤委員 그 다음에야 알으셨습니까?

○證人 尹興禎 예.

○金仁坤委員 알겠습니다. 당시 軍部에서는

大統領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혀 報告하지를 않았읍니다. 그래서 崔圭夏大統領은 光州事件이 어떻게 展開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大統領補佐官인 崔將軍을 시켜서 中央情報部에 확인한 일까지 있었읍니다. 그것도 直接的인 그러한 답답하니까 中央情報部에 물어본 사실이 있었는데 혹 大統領이 證人에게 이러한 사실을 물어본 사실이 있다든가 아니면 證인이 직접 報告할 事項은 못되겠습니까마는 혹 報告한 사실이 있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證人 尹興禎 제가 光州問題를 가지고 당시 崔圭夏大統領에게 報告를 할 기회는 없었읍니다.

○金仁坤委員 그것은 충분히 알겠읍니다. 그러면 本 特委會에 제출된 戰鬪詳報資料에 의하면 당시 示威鎮壓에 M16 實彈은 물론 戰車 수류탄 「크레모아」 武裝「헬」機 爆藥등 수많은 살육장비가 동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證인은 이것들이 어떠한 경우에 사용한 것들이었는지 하나하나 具體的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證人 尹興禎 忠正計劃에 騷擾事態가 났을 때에 出動할때는 어떠한 裝備를 가져다 휴대하라 하는 그런 것이 陸軍本部에서 規定이 되어 있을 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規定에 의해서 各 部隊는 그 規定에 의해서 자기가 또 推理해서 판단해서 적당한 裝備를 보유하게 또는 휴대하게 되겠읍니다.

제가 유감스럽게도 저의 위치가 어떤 戰鬪部隊 또는 隷下部隊에 그러한 裝備携帶問題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 統制를 가한다든가 또는 支援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위치에 있지 않았읍니다.

○金仁坤委員 그러나 우리가 常識的으로 생각할 때 光州示威鎮壓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기로는 光州事件이전에도 더 극렬한 示威가 전개되었읍니다. 다른 都市에서도 그랬고 光州示威에서도 그랬고 그 후에도 그랬읍니다. 요즈음도 그랬읍니다. 그러나 常識的으로 생각할 때 그러한 武器를 안 가지고도 얼마든지 示威를 鎮壓했고 源泉封鎖를 했읍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참작할 때에 그

당시의 光州狀況으로 보아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武器를 가지고 갈 必要性까지는 없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은 안 들어가십니까?

○證人 尹興禎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裝備들 이라면은 저는 전혀 그런 裝備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金仁坤委員 고맙습니다. 또하나 이것은 조금 문제가 다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證인은 5·17戒嚴擴大措置이전에 全斗煥씨를 만난 적이 있읍니까. 그 때 全斗煥씨 만났을 때 全斗煥씨가 하시는 말씀이 崔圭夏는 너무 優柔不斷해 優柔不斷해서 못 쓰겠다 라고 얘기했다는 사실이 있읍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證人께서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읍니까? 기억나시는 대로 참고가 될 만한 일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對答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證人 尹興禎 本聽聞會에서 제가 그 말씀을 答辯할 ...

○金仁坤委員 참고가 되는 것입니다.

○證人 尹興禎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崔圭夏大統領이 優柔不斷하다 하는 이야기를 全大統領이 저한테 했읍니다.

○金仁坤委員 優柔不斷해서 못 쓰겠다 大統領으로 못 쓰겠다 자기가 해야지 ...

○證人 尹興禎 자기가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

○金仁坤委員 그 요지가 되겠지요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

○證人 尹興禎 그래서 제가 그 분은 職業外交官出身이기 때문에 그 분한테 그렇게 決斷力을 願하는 것은 지나칩니다. 지나친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제가 答辯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金仁坤委員 證인은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證人 尹興禎 예.

○金仁坤委員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소리높여 얘기를 했지만 일부에서는 부인했던 사실이 明明白白하게 그 때부터 거의 事實化된 것이 나타났읍니다. 光州라고 하는 地域을 택해서 政權을 잡기 위해서 政權을 篡奪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殺傷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推理해서라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證인에

게 이것은 지극히 常識的인 문제가 되겠읍니다마는 示威鎮壓이라는 구실로써 光州의 良民을 虐殺하고 政權을 篡奪하려는 全斗煥一派의 陰謀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일관된 상황들이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그 당시의 戰鬪兵科司務官으로서의 戒嚴分所長으로서의 계실 때 그만두게끔 한 것도 入閣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에서 말씀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先輩들을 전부 軍에서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였다 이렇게 推理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말씀 안 해도 좋습니다.

○證人 尹興禎 제가 答辯을 못하겠읍니다.

○金仁坤委員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시지요?

○證人 尹興禎 곤란한 것이 아니라 答辯을 안 하겠읍니다.

○金仁坤委員 예. 안해도 좋습니다.

5·17戒嚴擴大措置이전입니다. 이전이니까 날 짜는 제가 물어 보아야 되겠읍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인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5·17 이전부터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委員長! 오늘 이 證人이 피곤하신데 여기 까지 나오셔서 대단히 좋으신 證言을 해주시고 良心的인 證言을 해 주셨읍니다 까닭에 시간이 남습니다마는 證人의 피로를 위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읍니다.

○委員長 文東煥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民主正義黨의 李光魯委員께서 訊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訊問時間은 30分이 됩니다.

○李光魯委員 평소 존경하고 先輩로 모시던 尹先輩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뵈고 또 證人과 訊問者의 위치에 서서 좀 어색한 감이 있읍니다마는 여기의 規定上 다음부터는 證人이라고 부르겠읍니다.

證人은 戒嚴下에서 公式 官職名稱이 무엇이었읍니까?

○證人 尹興禎 全南北戒嚴分所長입니다.

○李光魯委員 알겠읍니다.

軍의 指揮官은 戰·平時를 막론하고 上級部隊로 부터 命令을 수령하면 그 命令 안에 있는 任務를 분석하고 다시 말해서 명시되어

있는 任務가 무엇이나 또 거기에 따르는 追從任務가 무엇이나 하는 것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參謀들에 의한 綜合的인 판단을 받아서 자기가 上下 左右에서 획득할 수 있는 모든 情報를 수집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一般知識 軍事知識 모든 경험을 총망라해서 決心을 하게 되지요. 그 決心은 곧 隸下部隊에 命令化해 하달되게 되면 이것은 그야말로 복종만이 존재하는 軍令如山이라는 말이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때문에 指揮官의 決心에 대해서는 上官이라 하더라도 또는 同僚라 하더라도 그 누구도 決心過程에 있어서는 침해할 수 없는 神聖不可侵의 特權을 가지고 있는 것이 指揮官이지요.

혹자들은 命令을 合法的이나 非合法的이나 옳은 命令이나 옳지 않은 命令이나를 따지지만 軍에서의 그 긴박한 상황속에서의 命令이라는 것은 不法典書를 끼고 다니면서 옳은 命令 그른 命令을 판단할 수도 없고 또 모 아놓고 이것이 옳은 命令이나 그른 命令이나 討論할 수도 없는 특수한 組織이 軍隊의 組織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었읍니다.

○證人 尹興禎 특히 作戰命令은 말할 여지도 없읍니다.

○李光魯委員 예. 그래서 軍은 三信을 믿고 행동하지 않으면 基本任務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上官을 믿고 部下를 믿고 자기를 믿을 때 만이 任務遂行이 가능한 것입니다.

前述한 바와 같이 指揮官에게는 자기에게 決心할 수 있는 絕對權限이 부여되어 있는 것에 반해서 部隊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알았든 몰랐든 책임은 자기만이 진다는 것도 參謀業務教範 첫「페이지」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本 質問을 시작하겠읍니다.

戒嚴分所의 編成과 그 隸下部隊의 部隊構成은 어떻게 構成되어 있었읍니까?

○證人 尹興禎 戒嚴機構는 戒嚴司令官밑에 2軍 地域戒嚴司令官 그 다음에 全南北戒嚴分所系統이고 戒嚴分所長밑에는 全南地域은 31師團 그 다음에 全北은 35師團 그리고 저는 陸軍의 士官學校를 제외한 全學校機關을 指揮하고 있었기 때문에 陸軍大學을 위시해서 各 戰鬪兵科學教 兵器 兵站 工兵 通信 航空 軍醫學

校는 제가 指揮하지 않았습니다.

○李光魯委員 그러니까 證人께서는 戒嚴下가 아닐 적에는 地域責任을 그때도 지고 있었습니까?

○證人 尹興禎 總長한테 대해서는 學校에 대한 責任을 지고 31師團과 35師團에 대해서는 2軍司令官과의 上下關係에 있었습니다.

○李光魯委員 아까 同僚委員께서도 質問이 있었습니다마는 중간에 證人이 指揮權을 蘇俊烈將軍에게 인계한 날이 5月22日 10時라고 말씀하였습니까?

○證人 尹興禎 예.

○李光魯委員 非常戒嚴으로 擴大되면서 證人의 指揮幅이 확장됨에 따라서 上級部隊에서 필요한 部隊 增員配屬이 있었습니까?

○證人 尹興禎 있었습니다.

○李光魯委員 어느 部隊가 增員되었습니까?

○證人 尹興禎 7空輸의 3個 大隊가 配屬이 되었습니다.

○李光魯委員 총전에 鄭鎬溶證人이 얘기하는 7空輸의 2個 大隊라고 들었습니다.

○證人 尹興禎 1個 大隊는 全北에 全北大學校에 1個 大隊가 있습니다.

○李光魯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配屬된 部隊들에 대한 運用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運用하셨습니까? 再配屬했습니까?

○證人 尹興禎 全北에 있는 1個 大隊는 35師團長한테 再配屬을 했고요. 全羅南道로 온 2個 大隊는 31師團長한테 再配屬을 했습니다.

○李光魯委員 예. 아까 證人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우리 닳의 證人 鄭鎬溶證人께서는 결혼하는 것으로 配屬部隊를 얘기를 하는데 敎理에 있는 精確한 配屬에 대한 설명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證人 尹興禎 아까 指揮權에 관한 講義를 하셨는데 뭐 저 보다는 더 잘 아실텐데 왜 물으십니까?

○李光魯委員 配屬을 받게 되면 指揮權에 대해서 여기나 저기나 하는 것은 전혀 軍隊에 대한 常識이 없을 때 얘기이지 將軍社會에서의 配屬部隊에 대한 指揮權問題를 曰可曰否한다는 것은 이것은 常識水準이하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證人 尹興禎 具體的으로 어떤 문제가 있음

니까?

○李光魯委員 配屬을 받았을 때 우리 軍人社會에서는 그 指揮權이 原所屬部隊長에게 있느냐 配屬을 받은 指揮官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는 論議의 대상이 안되는 것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證人 尹興禎 그렇습니다.

○李光魯委員 당연히 配屬을 받은 指揮官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왕왕 指揮權의 2元化라는 얘기가 오고 가는 것을 오늘 하루종일 들었습니다.

○證人 尹興禎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光魯委員 예.

○證人 尹興禎 이 평시에 空輸部隊와 步兵部隊間에 있어서의 通信은 體制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部隊를 配屬할 때에는 通信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한테 配屬된 空輸部隊들은 步兵科의 通信體制는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안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선 朝鮮大學과 全南大學敎에 있던 大隊들은 師團長하고 그 一般 遞信部의 局線을 가지고 有線으로 通信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

더더구나 無電은 그 당시 우리 步兵은 FM網이지만 特戰司는 AM網아니겠습니까?

○李光魯委員 예.

○證人 尹興禎 물론 P10을 극소수는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周波數라든가 또는 그 당시에 31師團하고의 通信體系는 더더구나 機動을 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配屬部隊라 하더라도 이 通信問題는 그러한 취약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光魯委員 지금 證人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證人이 再配屬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證人 尹興禎 예.

○李光魯委員 그러면 再配屬한 隸下部隊 指揮官하고 그 配屬된 空輸部隊 大隊長하고 또 步兵 相互間에 無線만 가설해 주면 되지 않겠어요?

○證人 尹興禎 有線...

○李光魯委員 아니 有無線... 有線이야 뭐 가

능한 것이겠지요. 市内니까...

○證人 尹興禎 有線은 되었는데...

○李光魯委員 되는데 無線은 그것만 했으면 될 것 아니겠어요?

○證人 尹興禎 그 無線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FM網하고 AM網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全體의인 通信機材를 보급을 해주고 해야 되었을텐데 그 긴급한 상황에서 갑자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李光魯委員 생각이 되었습니까? 그 당시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까?

○證人 尹興禎 그 당시에 애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李光魯委員 그러면 그것이 再配屬된 것이 光州地域에서는 31師團이지요?

○證人 尹興禎 예.

○李光魯委員 31師團하고 空輸團 大隊하고의 通信施設에 애로가 있었다...

○證人 尹興禎 예.

○李光魯委員 그리고 指揮의 2元化라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證人 尹興禎 그것은 제가 2元化라는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20日頃에 陸軍參謀總長이 2軍司令官을 통해서 指示 내려온 바에 의하면 指揮의 1元化를 굉장히 강조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러한 指示事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指揮의 1元化를 강조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어떤 指揮의 2元化 현상이 있어서 그런 指示가 내려왔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제 생각을 해 봅니다.

○李光魯委員 그러나 그때 상황을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指揮의 1元化라는 것은 이것은 軍隊常識에서는 指揮의 1元化라는 것은 아주 基本的인 요건아닙니까? 그거야 뭐 물을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물을 필요도 없고 자기에게 주어진 權限과 義務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指揮의 2元化라는 것은 이것은 軍隊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얘기인데 2元化 2元化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해석의 착오 아닌가요?

○證人 尹興禎 당연한 것을 강조를 하는...

○李光魯委員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證人 尹興禎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어

서 그랬지 않았겠는가? 그것은 아마 그러한 指示를 한 분한테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指示를 내렸느냐...

○李光魯委員 그러나 실상은 그때 어땠습니까? 현재의...

○證人 尹興禎 실상은 저는 指揮의 一元化를 당연한 일로 알고 별로 관심을 안 가졌었습니다마는 配屬을 받은 被配屬部隊와 配屬部隊 간에 원활한 협조 원활한 指揮體制가 유지되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지금 저는 의심을 합니다.

○李光魯委員 제가 알른 못 알아듣겠는데요.

○證人 尹興禎 그 당시에는 제가 아무 의심을 갖지 않았는데 지금 물어보시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의심을 갖지 않았는데 그 후에 그러한 總長의 指示도 있고 그래서 配屬部隊와 被配屬部隊間에 원활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한 의심을 제가 지금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李光魯委員 그런 문제라면 그 당시 指揮報告가 되어야 할 基本的인 要件아니었겠습니까?

○證人 尹興禎 지금에 와서 의심인데 그 당시에는 아무 의심이 없습니다.

○李光魯委員 그러면 이상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指揮報告가 안 된다는 것은 通信施設이 안 된다. 이 部隊가 장악이 안 된다. 그러면 指揮權을 포기한 상태에 있었던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그 당시에 즉각 報告가 됐어야지요. 그것이 이상없었다면 그것은 이상없는 것입니다.

○證人 尹興禎 報告가 되었으면 본인이 그것을 그 당시에 認知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李光魯委員 알겠습니다.

7空輸團의 2個大隊가 配屬되기 이전에도 역시 戒嚴下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主要施設에 대한 警戒는 어느 部隊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까!

○證人 尹興禎 主要施設에 대한 警戒는 필요한 경우 郷土師團에서 담당했을 줄 믿습니다.

○李光魯委員 31師團입니까?

○證人 尹興禎 全南道는 31師團입니다.

○李光魯委員 光州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입

니다.

○證人 尹興禎 光州에 특별히 나가서 軍이 軍施設外를 경계한 것은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李光魯委員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까?

○證人 尹興禎 예.

○李光魯委員 7空輸團에서 光州까지 오는데 所要時間이 대략 얼마나 걸립니까?

○證人 尹興禎 車輛으로 하면 3時間정도 기차로 하면 조금 더 빠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李光魯委員 光州民主化運動이 확산된 원인중의 하나가 戒嚴軍의 강력한 鎮壓을 듣고 있는데 證人이 그 현장에서 보신 현지 指揮官으로서의 견해는 어땠습니까?

○證人 尹興禎 18日 저녁에 제가 光州市內에 있는 親知로 부터 많은 電話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戒嚴軍이 하기나고 이렇게 사람을 막 개패듯이 패도 되느냐고 그래서 저는 18日 鎮壓作戰을 실시한 결과 일단 鎮壓이 진정되었다 하는 報告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놀래가지고 한군데에서 電話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군데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19日 午前에 道知事이하 市長 教育監 地檢長 高檢長 그 외 宗教團體 이런 우리 軍·官·民 防衛協議會를 중심으로 한 對策會議을 즉각 召集을 하도록 밤에 제가 指示를 해서 거기에는 軍側에서는 31師團長 또 空輸旅團長을 비롯해서 軍의 要人들을 指揮官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對策會議을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때에 그 機關長들로부터 제가 정말 軍服입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여러가지 얘기를 듣고 제가 거기에서 일절 軍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심심히 당부하면서 또 지시를 했습니다.

그 機關長들이 얘기하는 내용으로 보아서 또 住民들이 18日 저녁에 저한테 직접 電話를 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보아서 18日 鎮壓에 상당한 軍의 소위 말하는 過剩鎮壓狀態가 심각하였다는 사태를 알게 되었습니다.

○李光魯委員 그 당시 光州 市內에 대한 地域司令官이 누구였습니까? 직접 地域司令官

...

○證人 尹興禎 31師團長입니다.

○李光魯委員 31師團長 指示下에 作戰이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證人 尹興禎 指揮下에 作戰이 이루어졌습니다.

○李光魯委員 行動이 이루어졌지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강한 鎮壓이라는 것 요전에 民和委에서도 蘇俊烈將軍이 證言하는데 강한 鎮壓이라는 것은 강한 示威 강한 示威 강한 鎮壓 이렇게 「에스컬레이트」식으로 된 것 아니냐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따지고 보면 강한 示威가 되니까 또 상대방도 강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證人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證人 尹興禎 물론 강한 鎮壓을 했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한 「리액션」이 왔다.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李光魯委員 또 事態가 악화된 원인중의 또 다른 하나는 惡性 流言蜚語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證人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尹興禎 惡性 流言蜚語가 많았습니다.

○李光魯委員 어떤 流言蜚語가 많았습니까?

○證人 尹興禎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마는 예를 들면 全羅道 씨를 말리려 왔다 등등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李光魯委員 5月21日 汎市民鬭爭委員會 學生委員會에서 發刊한 決戰의 순간이 다가 왔다는 題號下에 내용중의 일부를 보면 5月20日입니다.

死亡者 500名 負傷者 3,000名 武器를 製作하라 「다이나마이트」화염병 私製爆彈 불화살 불광통 등을 만들어라. 全 市民은 官公署를 불태워라 라는 등 傳單을 撤布하였다는데 당시 市民들이 이 傳單을 보고 또 現地 戒嚴分所長으로서 이 상황을 접했을 때 市民들의 動態와 또 證人의 느낌은 어땠습니까?

○證人 尹興禎 그것이 며칠입니까?

○李光魯委員 5月20日입니다.

死亡者가 500名 負傷者가 3,000名...

○證人 尹興禎 그런 사실이 없는데 그런 文書가 만들어졌다면 그것도 역시 流言蜚語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李光魯委員 그 다음에 光州 5月20日과 21

日 사이에 光州驛을 防火하고 器物破壞를 하고 그래서 列車가 運行이 中斷됐는데 이것이 示威하고 관계없는 國家의 交通動脈을 끊은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尹興禎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이유를 제가 지금 갑자기 對答하기가 곤란합니다. 곤란하다는 것보다는...

○李光魯委員 그것은 民主化運動의 示威하고는 관계가 없는 行爲아니었는가 생각...

○證人 尹興禎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런데 제가 그것을... 제가 조금 관련은 됩니다마는 거기하고 조금 벗어나는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李光魯委員 하십시오.

○證人 尹興禎 제가 情報局長을 하면서 金日成을 좀 공부를 하고 또 北傀에 대해서 특히 研究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北傀가 武裝間諜을 내려보내고 이러한 선동을 하고 또 그 다음에 非正規戰을 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은 물론 東豆川으로 가는 汽車를 한번 폭파시킨 事例는 있습니다마는 그 때까지 제가 研究한 바에 의하면 北傀는 非正規戰을 하는데 一般 大衆이 고통을 받을 만한 목표에 대해서는 打撃을 안합니다. 그래서 안한다는 한 個의 原則아닌 原則을 제가 좀 보았는데 예를 들면 水道에다가 毒物을 탄다든가 또는 그런 停車場을 폭파를 시킨다든가 이런 문제는... 顯忠門을 폭파시킨다는 이러한 목표는 設定을 하지만 그러한 交通機關을 마비시켜서 大衆의 生活에 곤란을 주어서 자기네가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목표는 파괴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인데 光州驛을 그렇게 만약에 파괴했다 하면 말입니다.

○李光魯委員 파괴했다면이 아니라 光州驛이 파괴됐잖아요? 現地에 계셨잖아요.

○證人 尹興禎 글썬 그것은 市民들이 당장 고통을 받는 문제를 자기 스스로 파괴했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李光魯委員 光州稅務署에서 武器가 최초로 17挺이 奪取 당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奪取 당했는지 혹시 그때의 現況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證人 尹興禎 제가 그 당시 報告 듣기에는

稅務署에 불이 나가지고 거기에 保管되어 있던 「칼빈」17挺이 彈藥은 없이 被奪 당했다. 이렇게 報告를 받았습니다.

○李光魯委員 亞細亞自動車에서 裝甲車를 비롯한 軍用車 200餘臺가 奪取 당했는데 그 때 示威群衆은 몇 名이나 왔고 또 그 때 示威群衆이 어떠한 裝備를 가지고 왔었는지 그 狀況報告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證人 尹興禎 狀況報告는 받지를 못하고 그냥... 狀況報告를 정확한 臺數 이런 것은 받지를 못하고 또 어떻게 攻擊을 받았다는 내용은 제가 報告를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確認한 바에 의하면 APC4臺와 기타 車輛 400臺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200臺가 아니라...

○李光魯委員 그러한 중요한 防衛産業施設에 警戒配置責任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證人 尹興禎 1次的인 防護責任은 그 당시에 亞細亞自動車는 豫備軍 聯隊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 豫備軍 聯隊長의 책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李光魯委員 地域司令官의 責任은 없습니까?

○證人 尹興禎 全體 全羅南道를 책임졌던 鄉土師團長에게 물론 指揮責任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문제가 될 정도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豫備軍 聯隊長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李光魯委員 師團隸下의...

○證人 尹興禎 그렇습니다.

○李光魯委員 기타 武器庫 火藥을 被奪 당한 곳 등등의... 여러 군데에서 被奪 당했는데 武器를 被奪 당한 장소가 몇 個所나 됩니까?

○證人 尹興禎 그 被奪 당한 장소를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李光魯委員 그렇게 많은 武器를 被奪 당했는데 그 당시에 哨兵들은 피해가 얼마나 있었고 또 奪取하려 왔던 群衆들의 피해는 얼마나 났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證人 尹興禎 그 정확한 통제는 잘 모르겠고요. 光州에서 그 문제가 發生하니까 警察力이 全部 光州로 집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光州 주변에 中小都市 이런 데에 있는 警察署나 派出所가 거의 사실 예를 들면 5名 있는 支所도 2名정도 남고 3名이

동원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아주 주변 都市의 警察力이 굉장히 약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光州市內에서는 사전에 이 31師團長이 郷土師團이 노력을 해서 거의 武裝回收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의 小都市는 警察力이 약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武器를 全部 被奪 당했다 이런 결과가 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李光魯委員 아무리 兵力이 없다 하더라도 武器庫에 대한 경비병은 있었을 거겠지요?

○證人 尹興禎 물론 武器庫에 경비병이 있었겠지요.

○李光魯委員 우리가 軍隊 常識으로 따진다면 自衛權活動이라는 것은 이렇게 많은 人員이 적은 哨兵을 공격하는데 그 目的이 武器를 탈취한다든가 탄약을 奪取하기 위한 目的으로 온다면 自衛權 發動이라는 것은 이럴 때 필요한 것 아닐까요?

○證人 尹興禎 그런데 實質으로 軍이 兵器를 뺏기는 事例는 저는 報告를 받지 못했습니다. 全部 豫備軍 警察 武器庫 職場武器庫에 있던 武器가 被奪 당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李光魯委員 光州에서 市民軍이 노호하면서 시민군이 武裝을 한 날짜가 며칠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證人 尹興禎 21日 午後입니다.

○李光魯委員 光州矯導所를 市民軍이 奇襲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狀況을 報告받으셨습니까?

○證人 尹興禎 예. 報告 받았습니다.

○李光魯委員 몇번 奇襲했다고 받았습니까?

○證人 尹興禎 저는 한번 받았습니니다.

○李光魯委員 그것은 정식 狀況報告로 받으셨습니까?

○證人 尹興禎 예.

○李光魯委員 午前 證人 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火焰放射器가 發射되어 사람이

(場內騷亂)

○委員長 文東煥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委員님들 좀 體面들 차리고 조용히 해주세요.

(場內騷亂)

○李光魯委員 委員長! 불필요할 때는 곧잘 수박에 간장 치는 말을 툭툭 하더니 이럴 때 왜 좀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해요?

○委員長 文東煥 조용히 하세요 지금 조용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하세요.

○李光魯委員 여기에 證人으로 나왔던 金宗培라는 證人이 火焰放射器의 亂射로 인해서 새카맣게 그슬린 屍體를 여러具 보았다 하는 끔찍한 證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證人은 原子爆彈이라도 있으면 軍人에게 던지고 싶은 욕심이었다는 말도 서슴치 않았습니니다. 사실 火焰放射器를 示威鎮壓에 亂射했다면 이것은 정말 天人이 共怒할 일입니다. 그 真相을 명확하게 좀 6何原則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尹興禎 저의 기억으로는 火焰放射器를 保有하고 있었는데 그 火焰放射器는 어떻게 使用하게끔 되었느냐 하면 물을 充電해 가지고 그 火焰放射器의 그 水壓의 힘에 의해서 한 30m는 충분히 아주 消防車의 물줄기만큼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저기에다가 물을 넣어서 어떤 경우에는 물감을 타고 어떤 경우에는 CS「가스」를 섞어서 그 CS「가스」가 아니라 催淚「가스」를 섞는데 그것은 좀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示威群衆에게 그 火焰放射器로 물로 火焰放射器를 그것도 투척이라고 합니니다마는 투척을 해서 主動者에게 빨간 칠을 하게 해서 나중에 그 主動者를 識別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火焰放射器를 쓰고 또 실지로 저기에다가 催淚「가스」를 넣으면 그 催淚彈과 마찬가지로 效果가 나는 이러한 目的으로 火焰放射器가 저는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다가 火焰을 하기 위해서 裝填을 하려면 상당한 後續裝備가 필요하고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물어보시는 李委員께서도 잘 아실텐데요...

○李光魯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戒嚴分所長 現地の 戒嚴分所長으로서 光州民主化示威 당시에 火焰放射器를 使用했던 일은 전혀 없다가 말씀이죠? 火焰放射器亂射 火焰亂射...

○證人 尹興禎 火焰亂射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李光魯委員 분명하시죠?

○證人 尹興禎 예.

○李光魯委員 더 묻고 싶은 말이 많은데 證人께서도 상당히 피곤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제 느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軍에서는 孫자가 얘기했다는 말을 잘 引用했습니다. 孫子도 “百戰百勝은 善者이고 不戰而 屈人之兵이면 善之善者”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백번 싸워 백번 이기는 사람은 善者이고 싸우지 않고 屈伏시키는 사람은 善者中的 善者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地域司令官으로서 現地戒嚴分所長으로서 가장 理想的인 方法은 그 말은 責任地域에서 私法 行政軍令權... 民主社會에서는 이것보다 더 강한 權限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은 任務라는 것은 時限附로 治安維持를 잘 하라는 任務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그런 騷擾가 일어났다면 첫째 최소의 兵力으로 최소의 損失로 最短時間內에 任務를 完遂하는 것이 善者가 될 것입니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에 주도면밀한 計劃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總力量을 動員해서 아무런 所要事態도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措置하면 善은 善者가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우리 나같이 오늘 여기에서 밤늦게까지 얘기하는 것도 그 당시의 아픔의 설움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한다면 다같이 양보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治癒하는 뜨거운 愛情에서만 이 문제가 解決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다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協調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빨리 光州의 아픔이 씻어지기를 所願하면서 本質問을 마치겠습니다.

○證人 尹興禎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李光魯委員 예.

○證人 尹興禎 지금 李委員의 그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인데 그러면 제가 그 自責感이라는 것 보다도 사실 軍의 傳統을 위해서 또 훌륭한 陸軍의 빛나는 傳統을 위해서 제가 李委員님께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 陸軍中將으로서 地域司令官입니다. 이 地域司令官한테 내려오는 指示가 모름지기 訓令型 命令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마치 大隊長級 정도의 命令型 任務가 부여되었습니다. 저한테

訓令型 命令만 내려주셨다면 제가 모든 責任을 지고 光州의 秩序를 維持하고 安定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責任回避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받은 命令은 大隊長級이 받는 이러한 命令型 命令입니다. 저한테...

○李光魯委員 저는 거기 깊은 그 部隊 相互間에 이루어진 內容까지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證人 尹興禎 지금 最初段階에 可用兵力 전부를 가지고 자기 判斷에 의해서 좀 안 했는냐 하는 꾸지람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게 그렇게 말씀 하시면 저도 할말이 있습니다.

저는 軍의 傳統을 위해서 참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軍發展을 위해서 결코 그 指揮部隊에 적합한 명령을 준다 하는 것이 軍의 統帥權을 유지하고 指揮權을 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要因이라고 생각합니다. 軍團長한테는 軍團長한테 적합한 任務를 주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李光魯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수고 하셨습니다.

○鄭昌和委員 委員長! 긴급한 議事進行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 있어 議事進行發言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예. 말씀하세요.

○鄭昌和委員 民主正義黨의 鄭昌和委員입니다.

本委員은 이 13代國會에 크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 4千萬 우리 國民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80年5月18일에 있었던 光州事態로 인한 아픔을 달래기 위해 이 時間 고통을 겪고 있는 善良한 光州市民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오늘 이 時間에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고생하시는 우리 60萬 國軍의 士氣를 떨어뜨리는데 대하여 國會 議員의 한 사람으로서 본 光州特委의 委員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함과 송구스러움을 느끼면서 本 議事進行發言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을 슬프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닐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文東煥委員長을 비롯한 우리 光州特委委員 여러분들이나 이 사실을 國民에게 소상히 알려주시기 위해 이 자리를 밤 늦도록 지켜봐주시고 계시는 言論人 여러분들이나 그리고

이 委員會의 活動을 支援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아침부터 밤 늦도록 함께 자리를 하고 있는 우리 補佐隊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본 5·18 光州民主化運動의 真相糾明을 위한 聽聞會는 우리 民族史에 있어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民族的 悲劇 100年 이상의 歲月이 흘러야만 治癒될지도 모르고 자기의 살을 에어내는 아픔을 견디는 그러한 忍耐가 없이는 참기 어려운 이 光州의 아픔을 그 眞相은 무엇이며 그러한 아픔을 治癒하는 方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위해 우리는 서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眞率한 마음으로 때로는 委員들간에 소리를 높여가면서 委員長에게 예의를 지키지 못함을 서로 안타까와 하면서 이 會議을 進行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침 10時부터 午後 8時半까지 계속된 鄭鎬溶證人에 대한 訊問過程에서 우리의 同僚委員인 李海瓚委員께서 光州事態의 慘狀을 알리는 寫眞이라고 證據物로 提示한 그 寫眞이 불행스럽게도 1969年度 大黑山島로 侵入해 들어온 武裝共匪의 우리 國軍에 의한 영광스러운 殲滅作戰의 記念寫眞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나서 우리는 確認되지 않고 명백하지 않은 한 장의 印刷物에 실린 寫眞으로 인하여 4千萬 國民에게 아픔을 더하고 地域間的 갈등을 더하고 그리고 光州市民의 아픔을 더하고 民과 軍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60萬 國軍의 士氣를 떨어뜨린 데 대하여 송구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午後 바로 우리 同僚委員인 李海瓚委員이 月刊中央에 실렸다고 하는 寫眞으로 본 光州事態 그 現場 마지막에 실렸던 이 屍體들을 즐비하게 모아놓고 여기에 空輸特戰團의 軍인들이 銃을 들고 웃으며 찍었다고 하는 이 虐殺의 現場이라고 했던 이 사진을 바로 이 寫眞 중에 主人公인 한 사람이 1969年6月10일부터 6月16일까지 黑山島로 侵入해온 武裝間諜 21名을 一網掃蕩하고 그 屍體의 一部를 모아놓고 한가운데에는 그 당시 이 部隊를 指揮했던 大尉 서문구씨 그리고 左側에는 황호만上士 그리고 맨 左側에는 지금도 特戰司令部에서 現役으로 勤務하고 있는 上士 윤병한씨 그리고 오른쪽에는 신상대上士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는 지금도 1空輸 特戰司令

部에서 上士로 勤務하고 있는 백원택上士로 확인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바로 李海瓚委員께서 이 寫眞을 證據로 提示하는 순간 生中繼를 통하여 비쳐진 그 사진을 보고 本人이 지금 이 寫眞이 空輸特戰團司令部 特戰會館에 걸려 있는데 本人이 이속에 있었던 그 당시의 戰功과 그 당시의 功績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上士 윤병한씨가 이 寫眞을 급히 빼어들고 이 聽聞會 現場을 찾아온 것입니다.

委員長님! 저는 이 자리에서 마치 이러한 事實이 明明白白하게 밝혀진 이순간 文東煥委員長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特委委員들이 과연 光州의 아픔을 달래고 民族의 슬픔을 달래고 國民의 아픔을 달래고 그리고 軍人의 士氣를 떨어뜨린 이 문제를 어떻게 謝過해야 할는지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생각을 省察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먼저 委員長님께 몇가지 提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文東煥委員長을 비롯한 우리 特委委員들이 혹시 그동안 光州事態를 불모로 하여 政派를 意識하면서 黨利黨略에 얽혀 아픈 者를 달래지 못하고 더 아픔을 새롭게 만든 國民으로부터 信賴받지 못한 國會議員들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本 特委는 委員長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特委 委員들이 이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고 이 光州事態의 아픔의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4千萬 國民에게 깊이 사과할 것을 提案합니다.

두번째 바로 이렇게 확인되지 않고 명확치도 않은 證據物을 함부로 國民앞에 公開함으로써 작은 실수가 큰 아픔을 도려낸 李海瓚委員의 個人的인 處身도 명백히 있기를 바랍니다.

세번째는 이러한 事實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言論에 함부로 실은 이 言論媒體에 대하여 國會次元으로서의 그리고 國民的 次元으로서의 적절한 措置가 있도록 特委委員長으로서는 措置를 취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아울러 그동안 金仁坤委員이나 餘他委員들에 의하여 수많은 證據物이 이 자리에서 提示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委員들은 與野를 떠나서 光州의 아픔에 直接的으로 被害가 있었던 없었던 그 사진들을 보고 끔찍함을 느끼고 비애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提出된 證據로 提示되었던 그러한 사진들이나 資料들이 진실로 事實인가 하는 것을 委員長께서는 즉각 調査할 수 있는 措置를 취하여 國民에게 더 이상의 아픔을 주지 말고 光州事態의 치유를 할 수 있는 方便으로 삼아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마지막으로 提案합니다.

그동안 證據物로 提示되었던 많은 사진들 그리고 또 「화려한 휴가」에 나왔던 小說과 같은 作戰도 이러한 것들의 事實與否를 확인하는 證據確認作業을 즉각 병행해 주실 것을 建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이 發言을 하고 있는 本委員의 집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全國에서 많은 抗議하는 威脅的인 脅迫電話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 黨에서도 그것을 이미 聲明으로 發表하였고 우리 李敏燮委員께서 오늘 아침에도 委員長께 거기에 대한 身分保護에 대한 措置를 해달라고 建議했음에도 불구하고 本委員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시간 현재 委員長께서는 아무런 措置를 취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本委員이 확인했습니다.

이것도 속히 措置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이와 같이 不確實한 事實로 인하여 혹시 黨利黨略에 의하여 政派의 利益을 위하여 사소한 感情에 의하여 國民을 선동하고 國民의 아픔을 달래고... 地域間的 갈등을 심화시키고 그리고 60萬 國軍의 士氣를 떨어뜨렸던 이러한 事實에 대하여 우리 特委로서의 적절하고도 정중한 사과를 위하여 잠시 이 會議을 停會하고 거기에 대한 對策을 相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委員長에게 停會할 것을 建議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가만히 조금만 기다리세요. 一方的으로 停會하는 법이 아닙니다. 一方的으로 停會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명백하게 된다면 그것은 꺾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여기서 저것을 事實이라

고 正式으로 채택한 일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李海瓚委員께서 그것을 그가 보는 대로의 證據物로 내세웠던 것이고 우리 特委로서 그것을 公式的으로 받은 것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얘기가 여기에 提示되었습니다. 그러나 公式的으로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고 하는 것을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나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명백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李海瓚委員 말씀하세요.

(場內騷亂)

○李海瓚委員 議事進行發言하겠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本委員이 앞서의 議事進行發言을 통해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사진의 出處는 本委員이 이 사진의 出處는... 얻은 것은 月刊中央 今年 3月號입니다.

그리고 이 月刊中央의 畫報에 분명히 寫眞으로 본 光州事態 그 現場이라고 明示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現場寫眞中에 보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本委員이 많이 봤던 寫眞들입니다. 많이 봤던 寫眞들인데 가령 이런 寫眞같은 경우는 本委員이 이 冊만이 아니고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도 봤고 다른 寫眞을 통해서도 봤습니다. 屍身을 이렇게 손발을 묶어가지고 管위에다가 뉘어 놓은 이런 寫眞이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委員長 文東煥 다른 寫眞 이야기 하실 필요없고 그 寫眞만 解明하세요.

○李海瓚委員 議事進行發言을 막지 마십시오.

바로 道廳에서 이렇게 죽은 寫眞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寫眞들을 光州現場의 寫眞들을 다 모아서 畫報로 묶어놓은 것이 이 月刊中央의 報道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記事가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이 寫眞이 현재 光州에서 죽은 寫眞이라고 하는 것을 本委員이 지금도 主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하면 이 報道者의 誤報의 責任은 이 報道者에게 있는 것이지 本委員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가지 지금 民正黨委員이 이 寫眞의

原本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寫眞과 月刊中央에 報道된 寫眞이 일차하다는 것은 是認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寫眞이 현재 民正黨委員이 主張하는 그 내용이 저도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일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관한 것은 此後 그 當事者와 확인하는 그런 節次가 있음으로써 보다 明確한 사실이 확인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

○委員長 文東煥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李海瓊委員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報道로 인해서 本委員이 光州現場寫眞이 아닌 것을 光州現場寫眞으로 歪曲해서 證據物로 제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光州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非命에 죽어갔기 때문에 어떤 歪曲된 사실로 光州問題를 歪曲시키거나 달리 評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에 接近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바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이 聽聞會의 자리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런 言論의 報道가 이런 過程을 통해서 잘못된 報道가 바로 잡아지는 것도 저는 대단히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다만 本委員이 強調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것을 根據로 잡아 지금까지 提示되고 있는 여러가지 중요한 資料들 그리고 앞으로 提示될 중요한 資料들 이것의 모든것까지 否定하려고 하는 그런 擴大解釋하는 政略的인 意圖는 삼가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本委員은 結論的으로 光州特委에서 모든 證據物에 대한 確認節次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提議한 것에 대해서는 本委員도 動議합니다. 실제로 이런 國防部에서 提出한 資料라든가 이 모든 資料가 信憑性이 대단히 없습니다. 거의 漏落된 부분도 많고 變造된 부분도 많고 이런 모든 資料를 확인하는 엄정한 聽聞會의 運營을 할 것에 本委員도 動議합니다.

앞으로 이런 잘못된 報道를 根據로 해서 聽聞會의 公信力自體를 意圖的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政略的인 發言에는 動議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그동안 ... 제 委員長의 의견도 들어보세요. 妥當하면 여러분 받아주세요. 그 동안 많은 證據物도 나왔고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가지 要請들이 나왔습니다. 그럴때마다 모두가 제가 미처 알지 못했을 때 여러분 自身이 이것은 聽聞會요 그런 것을 決定하는 자리가 아니다 따라서 이것을 幹事會議에 부쳐서 適當한 方法으로써 처리하는 것이 좋다 전부 그런 式으로 왔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모든 문제를 幹事會議에 一任해서 가장 적절한 方法으로 解決策을 만들어서 그것이 다음의 聽聞會에서 可決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添附한다면 이것때문에 國軍들이 妥當하지 않은 誤解를 받을 뻔 했던 것에 대해서 이것이 풀리는 것은 내가 나행하다고 생각합니다. 國軍들에게 不必要한 誤解가 간다는 것은 정말 可憐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十分 同意를 하면서 그러나 이 문제의 푸는 方法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둘 것이 아니라 幹事會議에 一任해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方法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세요.

○鄭昌和委員 委員長님의 말씀에 同意를 하면서 委員長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光州民主化運動의 眞相이 하나 하나 그 「베일」이 벗겨지고 實體的 眞實이 확인되어진다고 하는 데에는 꼭 다행스럽고 보람으로 느낀다는 委員長의 말씀에 全的으로 同感을 합니다. 그러면 단 한가지 지금 다행스럽게도 이 雜誌가 나온지 근 9個月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雜誌에 실린 이 寫眞의 眞實有無가 확인되지 않은 채 市中에 그대로 굴러 다녔고 또 이 앞의 많은 寫眞들은 몇日몇日 어디의 現場이다 하는 根據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公교롭게 이 두장만은 날짜와 場所가 실려지지 않고 여기에 한部分이 걸려진 이러한 寫眞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寫眞이 TV에 비추이자 여기에 現存하고 있는 人物중의 한 사람이 이 寫眞을 들고 이 곳까지 밤늦은 시간에 찾아 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실로 이 光州民

主化運動의 眞相을 糾明하는 적은 일이라도 보람있는 일이 이 자리에서 확인되었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는 윤병환上士가 지금 이 시간 현재 本委員會 事務室인 요 聽聞會 옆房에 지금 待機중에 있습니다. 委員長께서 만약에 허락을 하신다면 그 분을 現場의 證人으로 採擇하여 國民앞에 확인해주고 이러한 사실이 있어서 바로 軍의 名譽가 이러한 根據없는 사실로 인하여 그 동안 光州市民의 아픔을 더해왔고 國民의 아픔을 더해왔다는 이 사실에 한가닥의 아픔이라도 달래주고 지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할일이 아닌가하고 다시 한번 議事進行發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현재는 우리가 採擇한 證인이 와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끝난 다음에 다시 幹事會議에서 議論해서 決定하도록 해주세요.

(「잠깐 停會하세요」하는 이 있음)

글쎄 그래도요. 여기에 證인이 와 있는데 證인이 證言途中에 하는 것은 節次가 맞지 않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場內騷亂)

이것은 뒤에서 幹事들이 좀 모여서 議論해주세요.

○辛基夏委員 제가 發言權을 얻었습니다. 좀 조용히 해주세요. 發言權은 저한테 있습니다.

(場內騷亂)

○委員長 文東煥 發言權을 辛基夏委員께 드립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辛基夏委員 나의 發言權을 방해하지 마세요. 여러 委員님들 나의 發言權을 방해하지 마세요.

○委員長 文東煥 趙洪奎委員과 權海玉委員! 좀 조용히 해주세요.

辛基夏委員 말씀하세요.

○辛基夏委員 지금 저의 黨 所屬 李海瓚委員의 訊問過程에서 今年度 月刊中央 3月號에 掲載되었던 寫眞을 引用한 것이 그 寫眞이 光州民主化運動過程과는 관계가 없는 다른 寫眞이었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光州民主化運動의 眞相을 밝히는 마당에서 다른 寫眞이나 다른 資料가 나와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역시 本會議場에서 명백히

드러난 것과같이 李海瓚委員은 月刊中央... 아주 큰 月刊誌인 月刊中央에 掲載된 그 寫眞을 그대로 引用했을 뿐 그 이외에 光州民主化運動과 관계없는 어떤 資料를 民主化運動의 眞相을 밝히는 資料로 이용하려는 흔적이나 의도는 추호도 없었던 것은 명백합니다.

또한 지금 空輸部隊員이 가져왔다는 그 寫眞이 있습니다마는 그 寫眞의 眞相을 꼭 밝혀서 國民앞에 해박하게 해주어야 하겠다 하는 것도 저도 同感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節次는 다시 全體會議에서 證人으로 申請해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證言席에 서게 해서 명백히 해주는 것은 別論으로 하고 오늘 聽聞會는 저희 特委委員들이 묻고 證人으로 나오신 분이 答辯하는 그러한 과정인데 外部人士를 이 존엄한 자리에 순간적으로 데려다가 물어서 確認한다는 것은 聽聞會의 基本的인 理論도 무시하는 그러한 節次가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잡다한 다른 가지의 異論을 내세워가지고 우리 하루도 급한 한시간도 급한 1분도 급한 聽聞會를 遲延시키다는 것은 조금도 바람직스럽지 않아서 지금 앉아계시는 證人 尹興禎證人에 대한 訊問을 계속하고 나머지 일은 내일 4黨幹事會議 그리고 모레로 決定하고 있는 또한 全體會議 등등에서 論해 가지고 이 다음에 명백히 밝혀 주었으면 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委員長이 보는데로 이 證人 聽聞會는 계속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런 代案을 提示하겠습니다.

그 분이 寫眞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다니 그 분들을 대하는 어느정도의 禮儀도 필요한 것이니까 幹事들이 나가서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 듣고 對話를 하게 하고 이 聽聞會는 그냥 계속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幹事님들 나가셔서 좀 만나보고 오시도록 해 주십시오. 幹事님들 좀 나가서 이야기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부터 平和民主黨의 崔鳳九委員의 訊問을 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崔鳳九委員 平和民主黨의 崔鳳九委員입니다.

오늘 이 聽聞會가 命命에 살고 命命에 죽는 忠誠스럽고 용감무쌍한 우리 60萬 國軍의 士氣와 名譽에 추호도 損傷이 없기를 기대하

고 不撤晝夜 國土防衛에 專念하고 있는 그들의 勞苦에 감사하면서 또한 그들이 항상 우리 國民의 軍隊로 우리 4千萬國民의 不獲寢임을 굳게 믿으면서 몇몇 政治軍人들의 그릇된 判斷에 의한 指揮로 80年5月18日 光州民主化運動 당시 同族을 殺傷하는 民族的 悲劇이 光州에서 일어났던 것을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悲劇의인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實體의인 眞實을 발견하기 위해 證人에게 몇마디 訊問하고자 합니다.

證人은 眞實되게 사실대로 證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은 5月18日 光州民主化運動 당시 職責이 全南北 戒嚴分所長이며 戰鬪兵科教育基地司令官이었습니까?

○證人 尹興禎 예. 戒嚴分所長이고 戰鬪兵科教育司令官이었습니다.

○崔鳳九委員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證人께서 證人의 말에 의하면 訊問答辯에서 5·17以前에 全斗煥保安司令官이 保安司令官室에서 崔圭夏大統領이 優柔不斷하다고 했다는데 그 정확한 날짜와 시간과 당시 陪席한 사람이 누가 했는지 기억나는대로 말씀 좀 해주기 바랍니다.

○證人 尹興禎 만난 것은 확실한데요...

○崔鳳九委員 한 4月20日頃이라고 判斷 안됩니까?

○證人 尹興禎 며칠이요?

○崔鳳九委員 한 4月20日頃정도...

○證人 尹興禎 날짜는 확실히 제가 기억 못하고...

○崔鳳九委員 그 陪席한 사람도 잘 기억 안납니까?

○證人 尹興禎 陪席은 안 했습니다.

○崔鳳九委員 단들이 만났습니까?

○證人 尹興禎 예.

○崔鳳九委員 예. 알겠습니다.

5·18以前의 光州市民 學生들의 示威狀態는 대체로 평온했지요?

○證人 尹興禎 그렇습니다.

○崔鳳九委員 그리고 5月16日 光州에서 大學生 및 市民들 約 3萬名이 夜間 蠟燭示威를 했는데 그 때도 평온했습니까?

○證人 尹興禎 평온하다하는 表現보다도...

○崔鳳九委員 별로 過激하지는 않았다는 表現이 되겠습니까?

○證人 尹興禎 過激하지는 않았읍니다.

○崔鳳九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過激하지도 않았다면 空輸部隊를 따로 支援要請할 필요는 없었겠지요?

○證人 尹興禎 없읍니다.

○崔鳳九委員 그러니까 그 당시 狀況으로서는 光州市內에 있는 警察兵力이라든가 戰敎司 31師團兵力으로서도 충분히 示威態를 막을 수 있었다고 判斷됐지요?

○證人 尹興禎 그 때까지는 軍이 介入을 안하더라도 警察力으로서 충분히...

○崔鳳九委員 示威를 막을 수 있었다?

○證人 尹興禎 統制할 수가 있었읍니다.

○崔鳳九委員 예. 알겠습니다.

證人은 5月17日 午前 9時30分 陸軍 主要指揮官會議에 參席했지요?

5月17日全軍 指揮官會議가 있던 그 조금전에 9時半頃에서 陸軍本部에서 있던 陸軍主要指揮官會議에 參席했지요?

○證人 尹興禎 예.

○崔鳳九委員 그리고 11時頃에 全軍指揮官會議에도 參席했지요?

○證人 尹興禎 國防部會議지요?

○崔鳳九委員 예. 國防部에서 國防部長官主宰인...

○證人 尹興禎 예. 했습니다.

○崔鳳九委員 그때 혹시 會議內容 結果 뒤 중요한 것 생각나는 것 없읍니까?

非常戒嚴 全國擴大措置하고...

그 다음 혹시 무슨 國保委關係 그런 얘기는 없었읍니까?

○證人 尹興禎 國保委關係는 없었읍니다.

○崔鳳九委員 非常戒嚴 全國擴大措置하고 時局에 대한 情報局長 分析 判斷報告만 했읍니까?

○證人 尹興禎 情報局長의 對內外 情勢分析이 아마 있었을 것입나다.

○崔鳳九委員 예... 連署名하고 나왔지요? 그 文書에... 連署名한 記憶은 안납니까?

○證人 尹興禎 제가 記憶이 잘 안나는데 어떤 記錄에 보니까 連署名을 했다 하는 記錄을 보았읍니다.

○崔鳳九委員 證人의 記憶은 그렇게 확실치가

않습니까?

○證人 尹興禎 저는... 지금 거의 8年前 일인 데요 좀...

○崔鳳九委員 예. 좋습니다. 記憶이 확실치 않으면 아는 대로 좋습니다.

戰敎司의 당시 80年度 봄에 總정作戰計劃 내용은 대충 어떤 것이었습니까?

혹시 示威가 發生하면 強硬鎮壓으로 곧바로 치고 때리고 반항하면 大劍으로 찌른다는 그런 作戰計劃은 없었지요?

○證人 尹興禎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崔鳳九委員 그리고 示威群衆에 대한 發砲는 上級部隊의 어떤 指示에 의해서만 가능하지요?

一線指揮官이 자기 任意대로 어떤 狀況을 判斷하고 發砲할 수 있는 그런 自衛權 行使를 할수 있는 그런 狀況은 아니지요?

왜냐 하면 相對가 어떤 武裝怪漢이라든가 어떤 共產主義者出할 때의 그런 容共分子의 그런 相對가 아닌 바에 평화로운 示威를 하는 一般 우리 國民들에 대해서는 發砲를 그렇게 쉽게 容認안하지요? 一線指揮官들 한테 ...

○證人 尹興禎 그렇습니다.

제 知識으로서는 個人에게 해당되는 正當防衛 刑法 20條 21條는 個人의 行動일 때는 個人의 不當하다는 ...

侵害를 不當하다고 認定할 때에 個人의 判斷에 의해서 가능하지만 集團의 部隊는 반드시 指揮者의 또는 指揮官은...

○崔鳳九委員 제가 訊問하는 내용은 어떤 個人의 哨兵이나... 彈藥庫를 守備하는 哨兵이라든가 衛兵勤務하는 哨兵이 어떤 자기 作戰地域內에서 어떤 危害를 느꼈을 때 發砲할 수 있는 것은 軍人 服務規定에 나와 있지요?

○證人 尹興禎 나와 있습니다.

○崔鳳九委員 그래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一般 示威하는 國民들이 자기의 어떤 뜻을 알리기 위해서 示威를 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데모」鎮壓 당시에 一般 個人 兵士가 發砲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는 것이지요?

○證人 尹興禎 그것은 반드시 指揮官내지 指

揮者의 命令에 의해서 發砲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崔鳳九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7空輸 33大隊 35大隊가 全南大學校와 朝鮮大學校에 도착한 시간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까?

○證人 尹興禎 示威隊가요?

○崔鳳九委員 아니 7空輸의 33大隊와 35大隊가 全南大學校와 朝鮮大學校에 進入해 가지고 도착한 시간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까?

○證人 尹興禎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崔鳳九委員 못 합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5月18日 民主化運動이 왜 그렇게 갑자기 엄청나게 增幅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맨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데모」를 시작했다가 갑자기 光州市民이 확 이렇게 들고 일어나게끔 된 原因은 주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尹興禎 아까 李光魯委員의 質問에 제가 答辯을 했습니다.

○崔鳳九委員 제가 答辯內容을 압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確認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여기 光州事態의 眞相을 파악하는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質問을 제가 한번 더 再三하는 것입니다.

○證人 尹興禎 18日 저녁에 光州市內에 있는 親知 宗教界 또 醫師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가 평소에 아는 사람한테 제가 電話를 받았는데 이렇게 戒嚴軍이 무자비하게 할거냐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런 非難을 굉장히 받았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防衛協議會를 중심으로 한 ...

○崔鳳九委員 19日이지요?

○證人 尹興禎 19日 오전에 對策會議를 해서 機關長들과 軍 指揮官들과 같이 連席會議를 한 결과 거기에서 그 會議에 나온 사람들로 부터 제가 軍服을 입고 있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의 抗議를 받았읍니다.

○崔鳳九委員 그리고 5月20日도 또 2次 機關長會議를 했지요?

○證人 尹興禎 예.

○崔鳳九委員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었지요?

○證人 尹興禎 20日 會議는 조금 더 具體的

인 對策까지 論議를 했습니다.

○崔鳳九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軍에서 가지고 있는 暴動鎮壓 作戰敎範이라는 것이있지요?

○證人 尹興禎 예.

○崔鳳九委員 거기에 보면 그 敎範 125「페이지」를 보면 鎮壓部隊는 出動前 個人裝備로 武裝한다 그러나 帶劍은 휴대치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뭐 敎範에 쓰여 있는 대로니까 사실이겠지요?

○證人 尹興禎 그 敎範이 몇 年度에 出刊된 敎範입니까?

○崔鳳九委員 이것이 지금 제가 「카피」를 했기 때문에 發行年度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證人 尹興禎 제가 初級將校때 敎育받은 내용은 美軍의 暴動鎮壓 「라이어트 콘트롤」이라는 敎範을 번역한 것을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 의하면 그런 敎範이 좀 있는 것 같이 지금 記憶이 되는데 그러나 그 후에 우리 韓國軍에게 맞는 敎理 發展을 해서 그 敎範을 지금 제가 敎育司 士官을 할 때 그런 敎範도 제가 좀 연구를 시키고 獨自인 敎範을 發刊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敎範이 혹시 80年 이후에 나온 것입니까?

○崔鳳九委員 아마 80年度 그때 부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 敎範에 보면 말이지요. 鎮壓棒 사용시 打擊部位는 上膊이나 下膊에만 局限되어야 한다는 얘가지 머리를 때리거나 어깨를 때리거나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質問을 하느냐 하면 80年6月25日 현재 陸軍 軍事研究所에서 發表한 光州事態의 死亡者에 대한 分析內容이 있습니다.

檢屍結果인데요 그 당시 死亡 162名中 銃傷이 107名이고 打撲傷이 20名입니다.

打撲傷이라는 것은 주로 맞아가지고 그런 傷處를 입어 죽은 사람이 20名이고 刺傷은 뭐냐하면 칼로 가지고 예리한 것을 가지고 찔렸거나 그런 것이 刺傷인데 刺傷이 12名 死因不明이 15名 火傷이 1名 事故死가 7名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또 그 이후에 陸軍本部에서 發表한 내용이 조금 차이

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打撲傷이나 刺傷은 直近距離에서 말하자면 손으로 加擊했기 때문에 이런 結論이 생긴 것입니다.

만약에 示威隊가 銃器를 양쪽에서 서로 들었다면은 肉薄戰이 아니면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日이나 21日부터 示威隊가 銃을 가졌을 때는 이런 刺傷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打撲傷이나 刺傷은 直近距離에서 몽둥이나 칼로 휘둘렀을때 그런 傷害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戰敎司 戰鬪詳報에 보면은 5月18日 午後 4時40分에 10旅團 先發隊 300餘名이 光州에 도착했는데 이 部隊는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전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證人 尹興禎 要請은...

○崔鳳九委員 요청이 아니고 혹시 陸本에서 판단해 가지고 보냈다고 생각되니까? 그런데 왜 質問하느냐 하면은 지난 번 周永福證人이 19日 證言에 나와가지고 5月18日 점심시간때 光州示威事態報告를 받았는데 자기는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다면은 光州에다가 그날 말하자면 또 11旅團 兵力을 추가로 보냈다는 것은 理致에 맞지가 않거든요 우선 앞뒤 서로 말을 狀況을 견주어볼때 불과 거기에서 4時間후에 光州에다가 兵力을 도착시키게 했다는 것은 상당한 이전에 벌써 作戰命令이 下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狀況의 서로 모순점 現地司令官과 陸軍本部의 參謀總長이 판단하는 狀況하고 실제 兵力이 오고 가고 한 狀況은 서로가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이런 것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지금 證人한테 訊問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戰敎司 戰鬪詳報內容중에 5月18日 31師團에서 武器庫 接近者發砲承認建議가 있는데 언제 어떤 형식의 建議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이것은 戰敎司 戰鬪詳報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證人 尹興禎 저는 그 당시에는 그런 기억을 못합니다.

○崔鳳九委員 그런데 그 武器庫接近者發砲承認은 아까 證人께서도 말씀했습니까마는 그것은

그 哨兵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行使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굳이 31師團長이 戰敎司令官에다가 武器庫 哨兵이 接近者에 대한 發砲承認 要請할 이유가 있겠나 이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쭙어보는 것입니다.

○證人 尹興禎 그래서 그 기록에는 軍人服務規律에 의해서 조치하라 그런 해답이 내려갔다고...

○崔鳳九委員 그래서 거기에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證人 尹興禎 글썩요 그것은 저는 기록을 보고 알았습니다.

○崔鳳九委員 예. 기록에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는 사실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戰敎司 戰鬪詳報內容중에는 그런 기록이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상해서 지금 여쭙어 보는 것입니다.

○證人 尹興禎 저도 그 기록을 보고 알았습니다.

○崔鳳九委員 예. 5월19日 밤에 31師團長 鄭雄將軍이 參謀會議후에 上部의 強硬鎮壓命令을 거부하고 無血鎮壓命令을 所屬隷下部隊에 지시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때가 밤 조금 늦은 시간 21時인가 아마 그렇게...

○證人 尹興禎 며칠에요?

○崔鳳九委員 5월19日... 그때는 말하자면 強硬鎮壓 怨聲이 높을 때입니다. 1次機關長會議가 있고 난 이후지요?

○證人 尹興禎 예.

○崔鳳九委員 그래서 31師團長이 參謀會議를 해가지고 隷下部隊에다가 無血鎮壓을 갖다가 示達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지요?

○證人 尹興禎

○崔鳳九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貴下께서는 戰鬪兵科敎育司令官職을 5월21日 그만 두는 것을 通告받았지요? 그리고 그 離任式은 5월22日 10時에 했지요?

○證人 尹興禎 離任式을 정확히 몇 時에 했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崔鳳九委員 그러니까 말하자면 交代時間은 정확히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10時로 午前에 10時.....

○證人 尹興禎 公式上 時間이 10時입니다.

○崔鳳九委員 그런데 軍人으로서 大將까지 昇

進까지 했으면 더욱 좋을텐데 中途 원치 않는 豫編을 하고 비록 遞信部長官으로 되긴 됐습시다마는 100日 남짓하고 그만 뒀는데 그때 豫編을 證人께서 원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원하지 않는데 豫編이 됐습니까?

○證人 尹興禎 軍人이 法定期間內에 豫編을 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崔鳳九委員 예. 알겠습니다.

5月20日 午後 31師團長으로부터 空輸部隊의 作戰統制權을 剝奪한 사실이 있습니까?

○證人 尹興禎 없습시다.

○崔鳳九委員 그러면은 空輸部隊 指揮의 作戰統制權을 剝奪한 사실도 없었는데 지금 作戰指揮權은 空輸部隊를 갖다가 사실상 31師團長 손에서 떠났습시다. 空輸部隊의 作戰指揮權이 사실상 5月20日 말하자면 午後부터는 31師團長 손에서 CAC司令官한테 넘어 갔다고 되어 있는데...

○證人 尹興禎 며칠날 몇時에요?

○崔鳳九委員 5月20日 午後부터...

○證人 尹興禎 5月20日... 그런 사실이 없습시다.

○崔鳳九委員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고 난 이후부터 5月20日 午後부터 다시 共匪討伐式 말하자면 強硬鎮壓方法에 의한 示威鎮壓이 된 것 아닙니까? 5月20日부터 다시 強硬鎮壓으로 作戰變更된 것 아닙니까?

○證人 尹興禎 5月20日부터요?

○崔鳳九委員 예. 5月20日 午後부터...

○證人 尹興禎 그런데 제가 그 어떤 記錄을 보니까 말입니다. 記錄이 아니라 刊行本 刊行된 책들 뒤 "화려한 休暇"라든가 기타 윤재걸씨가 쓴 책이라든가 여러가지 제가 좀 보니까 저는 20日 戒嚴軍의 태도가 좀 달라졌다 하는 그 句節을 발견하고 두차례의 對策會議에서 제가 그래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주의를 促求한 效果가 좀 있었는가? 또 31師團長이 그렇게 隷下部隊에다가 그렇게 또 空輸部隊에다가 주의를 促求하고 이런 것이 좀 편찮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20日 初半에는 좀 戒嚴軍 태도가 상당히 누그러졌다 하는 그 記錄이 나올 정도로 되었었지만 그러나 그 示威는 더 加熱해 졌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崔鳳九委員 시간이 없어 제가 한 두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離任式을 하셨지요?

○證人 尹興禎 離任式이요?

○崔鳳九委員 예.

○證人 尹興禎 제가 그 離就任式은 안하고 울적에 떠나면서 離任人事만 하고 왔습니다.

○崔鳳九委員 인사할 때 혹시 將兵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까? 기억나는 얘기가 없어요?

○證人 尹興禎 제가 아직도 조금 기억나는 것은 이러한 지금 事態 와중에 내가 떠나는 것이 참 가슴 아프다 그런데 지금 이 光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示威하는 群衆과 그 다음에 우리 軍 戒嚴軍과 지금 平行線을 걷고 있는데 이것을 피를 안 흘리고 和合을 하려면은 한쪽이 양보를 하든가 양쪽이 양보를 하면 좋지만 한쪽이 양보를 해야 이것은 和合이 될 수 있다 그러면...

○崔鳳九委員 그리고 총을 쏘지 말라고 했지요?

○證人 尹興禎 아니요 양보를 하는 쪽이 누가 돼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힘 가지고 있는 측이 양보를 해야 和合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뜻을 이어서 피를 흘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이 事態가 收拾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하고 제가 떠났습니다.

○崔鳳九委員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내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7空輸 33大隊 35大隊 그 다음에 3旅團 11空輸旅團의 指揮所가 CAC狀況室에 設置되었다고 아까 證言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證人께서... 그런데 31師團의 作戰統制에 配屬되었다면 당연히 31師團狀況室에서 狀況報告를 받고 作戰指揮를 해야 될텐데 指揮所가 왜 CAC 말하자면 戰敎司狀況室에 設置되어 있었는지 거기에 내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軍 內部事情을 내가 잘 모르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31師團長指揮를 받기 싫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쪽이 더 편리한 것인지 아니면 二元作戰指揮體系를 유지한 것인지 그런 점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證人 尹興禎 아까 鄭鎬裕證人의 證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作戰命令으로 그 당시에 7空輸를 제가 31師團에 再配屬을 시켰어요. 즉 7空輸 별2개 하는 표시로서 지

시가 되었다면 7空輸 旅團長은 꼭 31師團長에 가서 報告를 하고 거기에 가서 위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지 않고 7空輸의 33大隊와 35大隊만 31師團에 再配屬 이러한 것으로 되면 그것은 旅團長이 師團에 갈 필요는 없고 大隊만 2個가고...

○崔鳳九委員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기전에 3空輸旅團과 11空輸旅團은 완전히 31師團에 配屬된 것입니다. 作戰統制된 것입니다. 統制配屬된 것입니다. 그 관계를 같이 제가...

○證人 尹興禎 그래서 7師團부터 먼저 말씀드리지요 7師團은 그럴 경우에는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33大隊 35大隊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서 再配屬이 되었다면 旅團長은 1個 大隊는 大田에 있고 또 1個 大隊는 35師團에 1個 大隊가 있고 하기 때문에 戰敎司司令部에 위치하는 것이 旅團長 위치로써는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35師團에 있는 大隊하고는 戰敎司에서 35師團을 통해서 通信이 되고 또 31師團에 配屬된 2個大隊도 되고 또 大田에 있는 大隊도 209를 통해서 戰敎司에서 하는 것이 훨씬 通信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 3旅團長의 위치는 그것은 戰敎司에서도 무방합니다. 이제 大隊로 명시 되었을 때는요. 그래 그것도 제가 作戰指示內容은 명확히 확인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1空輸 3空輸는 作戰統制입니다. 配屬이 아니고 作戰統制를 했습니다. 作戰統制한 旅團은 師團長한테 報告를 해야 됩니다. 자기 旅團의 위치가 어디다 그 위치 旅團長이 자기 旅團을 가장 지휘하기 좋은데 또 필요한 곳에 그게 CP입니다. CP를 정하고 그 위치를 師團長한테 報告 할 義務가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報告가 안 되어서 師團長이 報告를 못 받았다면 그것은 空輸 旅團長의 잘못이며 이 사람들이 만약에 戰敎司에 있었다 하면 이것은 旅團長들의 위치가 부적절하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崔鳳九委員 감사합니다. 質問할 것이 좀 많이 밀려 있는데 시간이 다 됐고 밤이 깊었으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음은 統一民主黨의 朴泰權委員 일단 시작하시고 가다가 次數를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30分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泰權委員 民主黨 朴泰權委員입니다.

證人께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本委員이 생각할때 당시 光州地域의 戒嚴分所長의 입장에서 상당히 깊은 감회를 갖고 많은 眞實에 접근하면서 證言해 주시는 자세로 느끼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證人께서 全南北地域에 戰敎司 司令官으로 계시면서 戒嚴分所長을 쪽 맡아서 진행해 오셨는데 10·26 당시에 10·26의 金載圭事件을 다 알고 계시지요 事件뒤에 나왔던 내용들을 ...

○證人 尹興禎 제가 二審裁判長을 했습니다.

○朴泰權委員 아! 裁判長까지 하셨습니까?

그러면 더욱 문제를 깊이있게 아시고 더군다나 요즘 光州抗爭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많은 委員들이 또 많은 분들이 훌륭한 證言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접근해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진실을 접근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실 많이 막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10·26事態를 證人께서 지금 간단하게 보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證人 尹興禎 10·26事態가요?

○朴泰權委員 예. 大統領殺害事件이지요. 예. 뭐 피력하시기가 어려우시다면 굳이 제가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光州特委問題는 우리가 歴史的으로 가능한限 오랜 歷史서부터 찾아와서 5·18光州抗爭의 또는 5月27일에 있었던 鎮壓作戰등 모든 것을 역사적인 데서부터 찾아서 그 모든 문제를 마무리해야 되고 그런 것이 하나의 배경이 될 것 같아서 訊問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2·12事態가 그 후에 있었는데요. 12·12事態는 지금껏 많은 證人들이 證言하기를 이제 와서 과거에 力不足이었거나 또는 잘못이었거나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현재 많은 분들이 下剋上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證人께서는 12·12事態를 좀 간단하게 심정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 評을 해주셔도 좋고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해주시지요?

○證人 尹興禎 저는 그 당시에 光州의 시골

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연관돼서 제가 조금이라도 어떤 연관을 짓고 무슨 일을 했다던가 거기에 관련을 했다면 제가 지금 저의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정말 「아웃사이다」입니다. 정말...

○朴泰權委員 그렇습니까?

○證人 尹興禎 예.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朴泰權委員 도움이 되질 않는다... 그런데 本委員이 생각할 때에는 이 光州問題는 역시 5월에 있었던 學生들의 示威에서부터 간단하게 5·17 5·18 5·27에 이어지는 문제로 보고는 싶지는 않습니다. 그 歴史的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에는 12·12事態로 소위 많은 證人들이 표현하는 下剋上의 문제까지도 연관해서 좀 진실을 파악해 보고 싶은 심정에서 訊問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文東煥 訊問도중입니다마는 지금 子正이 가까와졌기 때문에 잠시후 次數를 변경하여 12月8日 會議를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證人 子正이 넘어도 계속 팬참으시겠는지요?

○證人 尹興禎 예.

○委員長 文東煥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會議를 마치고 散會를 宣布합니다.

(23時58分 散會)

○出席委員

文 東 煥	權 海 玉	金 吉 弘
朴 燾 太	辛 卿 植	沈 明 輔
安 榮 基	李 光 魯	李 肯 珪
李 道 先	李 敏 燮	鄭 東 鎬
鄭 昌 和	金 泳 鎭	辛 基 夏
李 海 瓊	趙 贊 衡	趙 洪 奎
崔 鳳 九	金 光 一	朴 泰 權
吳 景 義	李 仁 濟	張 石 和
金 文 元	金 仁 坤	玉 滿 鎬
朴 燦 鍾		

○委員아닌出席議員

金 裕 泰	金 潤 煥	金 鍾 基
金 重 權	金 顯 煜	俞 學 聖

李東鎮	李相得	李鍾贊
李致浩	李台燮	張慶宇
咸鍾漢	黃昞禹	金元基
朴鍾泰	柳峻相	鄭祥容
鄭雄	曹喜澈	姜信玉
朴寬用	崔炯佑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專 門 委 員	陳 在 勳
立 法 審 議 官	金 永 善

○出席證人

鄭鎬溶

尹興禎(전남북계엄분소장)